

# DHEA 신드롬

DHEA는 현대인의 불로초인가.  
 한국인 관광객그룹이  
 미국에서 싹쓸이 해간다는 DHEA를  
 왜 미국인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고민을 모두  
 풀어준다는 과장 선전도  
 문제이지만 건강과 정력에  
 좋은 약이라면  
 물불을 못가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습성이 안타깝다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여유있는 생활로 접어들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문제에 관심이 대단하다. 좀 더 젊어지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가 보다.

며칠전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 아이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미 동부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왔다. 시간이 있어 뉴욕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선 인사가 “어서 오십시오 불로초 DHEA 많이 왔습니다.” 하는 것이다.

## 과장선전에 놀아나는 한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그 약을 찾길래...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지나가면 신비의(?) DHEA를 싹쓸이해 간다는 것이다.

DHEA(*Dehydroepiandrosterone*)는 인체내의 아드레날린 샘에서 분비되어 혈액 속에 존재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96년 9월16일자 「뉴스 위크」지에서 이에 대한 기사를 실

었고 이것을 금년 초에 MBC에서 보도함으로써 명약으로 알려져 50~60대 사람들이 DHEA를 구하려고 혈안이 되었었다.

약국마다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고 불과 1주일만에 서울시내 재고가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2~35달러 하는 DHEA가 한국에서는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에 팔렸다니 할 말이 없다.

캐나다의 호수를 끼고 있는 정글속에서 밀렵꾼이 극성을 부리는데 곰을 잡아서 쓸개와 발바닥만 잘라가는 밀렵꾼을 잡고 보니 한인 교포라는 것이다.

한때는 태국으로 정력에 좋다는 코브라탕과 곰발바닥 요리를 먹으러 간 지도층이 있어 말썽이 되기도 했다.

그래보야 70~80세 밖에 못사는 인생인데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한인매장에서는 DHEA는 “젊음을 되살리는 기적의 호르몬”이란 전단을 뿌리며 신비의 영양약으로 선전하고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

DHEA는 ① 노화과정을 지연시키며 각종 노화성 성인병을 예방시키고 ② 남성 스테미너의 현저한 증가 ③ 심장질환 발생억제 ④ 인체내의 면역기능 강화 ⑤ 과도한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의 생성방지 ⑥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촉진 ⑦ 탄수화물의 인체내 지방으로의 전이방지 ⑧ 신경쇠약, 만성피로증후군, 기억력 감퇴 등에 탁월한 효과 ⑨ 근육강화 및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노후생활의 활력 ⑩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및 폐경기연 ⑪ 다이어트



李世鎔

〈한국과학저술인협회 부회장/서울송파구의회의원〉

에 놀라운 효과 ⑫ 우울증에서 해방 등의 효력이 있다고 과장선전하고 있다.

### 임상실험 안거쳐 美國人 외면

현대인의 고민을 다 풀어주는 명약이라면 누구나 100세 이상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신비의 약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일까? 임상실험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람이 약을 좋아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임상실험대에 올라가 있는 기분이다. 정력에 좋다고 하니깐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알 먹으라는 것을 네알씩 먹는다니 웃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도 문제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DHEA를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

방송국과 언론에서 보도가 있은 후 약국의 약장에서 잠자고 있던 DHEA가 품절이 되니 일확천금을 노리던 수입상들이 재빨리 대량 구입해 들여오다가 세관에서 덜컥 걸리고 말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1인당 5통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니 뒷거래는 성행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량 통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어느 관광객이 귀국하면서 DHEA의 플라스틱통을 제거하고 비닐 주머니에 알맹이만 넣어서 수백통을 들여왔더니 웃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입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개방하여 DHEA는 임상실험이 되어 있지않은 약이니 위험할 수도 있으니 복용에 주의바란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으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어떤 약을 먹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로 자연식을 하고 주기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하여 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야 할 것이다.

동물의 수명을 계산할 때 그 동물이 완전 성숙했다고 볼 때 5배의 숫자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8배로 한다고도 함).

즉 소가 태어나서 완전 성숙기간을 첫 새끼를 낳을 시기로 본다면 평균 3년이므로 소의 수명은 약 15~20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사람의 수명은 완전 성숙기간을 20~25세라고 할 때 최소 100~125세는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적당한 운동이 장수비결

인류가 최장수로 기록된 것을 보면 구약성경 5장3절에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고 930세를 향수(享壽)하고 죽었다고 하였으며, 25절을 보면 아담의 후손인 모두셀라는 187세에 자녀를 낳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70~80세 밖에 안된다.

젊어지는 약 DHEA로 구약시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까?

자연건강법에 많은 저서를 남긴 미국의 에어라박사가 직접 전 세계의 장수마을을 순회하면서 장수의 비결을 조사연구 발표한 것을 보면 히말라야산맥 지방의 사람들이 평균수명 100세가 넘었는데 이는 그 지방의 좋은 공기를 명상법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하루의 일과를 조깅으로 시작한지 15년이 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운동장이나 인근지역을 약 1시간 정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뛰면서 생각한다.

수서역 인근에 대모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해발 283m이다.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같이 대모산을 올라간다.

하루중 공기가 가장 깨끗한 시간은 새벽 6시부터 해가 뜨는 전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대모산 정상에 오르면 가슴 속까지 시원하다.

소나무 숲속 사이를 지나노라면 향긋한 소나무 특유의 향기가 온몸에 스며든다. 내려오는 길에 쌍봉약수터에서 물 한바가지를 꿀꺽 꿀꺽 마시는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 돌아오기까지 약 1시간 반이 소요된다.

건강을 약으로 산다는 의식을 버려야한다. DHEA가 무엇이길래 그리 야단일까? 약으로 젊어지려고 하지 말고 약으로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과 새벽 해 뜨기 전후의 좋은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⑮